

[종합·해설]

野 '반대운하' 전선... 본격 공세

총선정국 '승부카드'... 非한나라당 후보 단일화도 모색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를 극비 추진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권이 대운하 저지를 위한 정당대표회담을 추진하는 등 대운하가 총선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진보신당 심상정 상임 공동대표는 30일 오전 한반도 대운하에 반대하는 제 정당 대표 회담을 공개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4·9 총선은 경부 대운하와 대운하 강행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로, 뜻있는 정당들이 대운하 반대 의지를 분명히 하고 단호한 실천 연대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급히 제 정당대표 회담을 열어 대운하 반대의 확고한 행동을 모아내자"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서울 은평을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비(非) 한나라당 후보 간 단일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앞서 문 대표와 심 대표는 지난 26일 민주당 최 성(경기 고양 덕양을), 공천 탈락 후 불출마 선언을 한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과 함께 대운하 저지를 위한 '초당적 실천연대'를 결성했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은 물론,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친박계 인사들 모임인 친박연대도 대운하에 적극 반대하고 있어 조만간 대운하 반대를 위한 야권의 5당 또는 6당 정당대표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순학구 대표와 강금실 선거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대운하 밀실추진·정치사찰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언론이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추진 사실을 보도하자

국토해양부가 마지못해 지난 1월부터 '한반도 대운하 검토반'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며 "말로만 떠돌던 대운하 밀실추진은 사실이였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당초 대통령은 대운하는 100% 민자사업이라고 국민에게 얘기해 왔는데 이 보고서에는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정부지원과 규모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있어 충격을 더 하고 있다"며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경찰과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대운하에 반대하는 대학 교수들에 대한 성향조사까지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대운하 추진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물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대운하 반대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언론이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추진 사실을 보도하자

4·9 총선 표밭



이희호 여사 등 참석 김홍업 선거사무실 개소

○김홍업 무안·신안군(무소속) 후보는 지난 29일 이희호 여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민주당의 뿌리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고 정통 민주당을 다시 살려내겠다"며 총선 승리를 다짐.

이희호 여사는 "김홍업 후보는 매우 억울한 심정으로 출마했으며 당당히 당선해 억울함을 풀고 국가를 위해 다시 한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며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격려.

박지원, 시민 5천여명 참석 대규모 유세



○박지원 목포시 후보(무소속)는 30일 목포역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무안·신안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홍업 의원 등 5천여명의 목포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유세를 개최.

이날 '목포의 어머니'라는 사회자의 소개로 유세차량에 오른 이희호 여사는 창조연설에서 "박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제1등 공신으로, 남북의 높은 장벽을 헐어낸 분"이라며 "박 후보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켜 달라"고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

박주선, 무등산 증심사 상가서 득표활동



○박주선 통합민주당 광주 동구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과 휴일을 맞아 등산객이 몰리는 증심사와 상가 등을 돌며 득표활동에 분주.

박 후보는 30일 증심사 입구 주차장 거리 유세에서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고 국정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절실하다"며 "국회에 임선하면 여당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호남차별에 맞서겠다"고 지지를 호소.

직능연합, 오늘 강운태 후보 지지 선언



○직능연합당이 31일 오후 5시 강운태 광주 남구(무소속)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할 계획.

오호석 당의장은 이날 지지선언에서 "강 후보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중산층 양산, 1천만 직능인의 권익과 영입권 보호를 위해 힘써 줄 것으로 확실한다"며, "직능연합당은 강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할 예정.

김영록 "안도를 전북산업 특화 지역으로"



○김영록 해남·안도·진도군(무소속) 후보는 30일 안도읍과 고금, 약산 등을 방문, 주민들에게 주요 정책을 홍보하며 지지를 호소.

김 후보는 이날 안도읍장에서 "안도를 전북산업의 특화 지역으로 만들고, 전문수산 경영인력 양성, 해양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조성, 광주-안도간 고속도로의 안도 구간 조기 착공, 안도 내대식물원의 국립수목원 격상 등을 꼭 이뤄내겠다"고 약속.

민화식 "농어촌 복지·교육·환경 정책 확대"



○민화식 통합민주당 해남·안도·진도군 후보는 30일 안도읍 등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주요 공약을 제시하며 표밭 다지기를 본격화.

민 후보는 이날 이날 안도읍을 돌며 주민들과 만남의 기회를 갖고 "해남·안도·진도를 동북아 중추거점 기지로 발전시키고, 농·어촌 지역의 복지·교육·환경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지를 당부.

한화강, 10대 공약·47개 정책 과제 발표



○한화강 광주 북구갑(무소속) 후보는 3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주요 공약을 발표하는 등 총선 승리를 위한 표밭잡이를 본격화할 계획.

한 후보는 이날 지하철 2호선 조기건설과 주민 요구가 반영된 노선 변경, 가정 김대중 기념관 건립, 소규모 어린이 도서관 건립 등 광주 발전을 위한 10대 공약과 47개 정책 과제 등을 제시하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

/홍행기·김지음·박진표기자 redplane@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10% 이상 득표 가능할까?

한나라 광주·전남 후보들 잇단 약자에 힘겨운 선거전

18대 총선 선거 운동이 중반전에 진입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한나라당 후보들의 선전 여부도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역대 총선에서 한 자릿수의 평균 득표율을 넘지 못했던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에서 10%대 이상의 평균 득표율을 기록한다는 입장이다.

30일 광주·전남지역 한나라당 후보 진영에 따르면 선거전이 민주당과 무소속의 대결 구도로 형성되면서 한나라당 후보들은 힘겨운 선거전을 치르고 있다.

특히 대선 직후만 해도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 한나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과거에 비해 수직 상승했으나 이후 대통령직 인수 및 내각 구성 과정에서의 '호남 배제론'이 제기되면서 한나라당에 대한 지역 민심은 다시 과

거로 회귀한 느낌이다.

전남지역 한나라당의 한 후보는 "17대 총선에 이어 18대 총선에서도 중앙당이 무너만 호남인 인사들을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배정하고 온갖 역경에도 민심의 바다를 누볐던 인사들은 외면하면서 호남지역 한나라당 후보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대내외적 환경이 크게 악화되면서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의 평균 득표율 두 자릿 수 돌파 목표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 두 자릿 수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는 동구, 서구 등 일부 지역과 전

남에서는 나주·화순, 담양·곡성·구례 등을 중심으로 한나라당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 후보들의 지역 평균 득표율이 10%대를 돌파하는 어렵겠지만 과거보다는 높은 7~9%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조형래 군수 민주당 입당

조형래 곡성군수와 조상래 전남도원의 29일 통합민주당에 입당했다.

조 군수 등은 이날 곡성 지구당사에서 입당식을 갖고 "한나라당을 견제할 강력한 야당 건설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지역발전은 물론 일을 하느라 주위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며 "지역과 나라 발전을 위하여 한나라당의 독선과 아집을 견제할 민주 세력의 결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과목	잔액	과목	잔액
I. 유 동 자 산	88,348,821,122	I. 유 동 부 채	54,648,949,177
(1) 당 좌 자 산	79,670,334,363	1. 매 입 채	13,145,930,948
1. 현금및현금성자산	1,889,978,146	2. 단 기 차 입 금	28,548,989,501
2. 단기금융자산	0	3. 미 지 급	73,848,624
3. 매출채권	19,231,888,292	4. 공 사 선 수	0
4. 선 급	270,482,150	5. 분 양 선 수	217,676,000
5. 선 급 비	18,022,494	6. 분 양 미 수	178,476,000
6. 선 급 공사원가	1,212,236,961	7. 미 지 수	26,759,155
7. 분 양 미 수	1,000,991,788	8. 미 지 급 비	4,534,789,652
8. 미 수	169,169,000	9. 부 가 세 예 수	168,250,089
9. 미 수 수 익	5,126,439,536	10. 미 지 급 법인세	262,515,670
10. 단 기 대 여 금	50,744,417,526	11. 유 동성 장기차입금	0
11. 선 급 법인세	7,308,470	12. 주주원단기차입금	7,498,713,538
12. 부 가 세 대 담	0		
(2) 고 정 자 산	8,678,486,759	II. 고 정 부 채	70,138,963,812
1. 완 성 주 택	2,883,457,729	1. 장 기 차 입 금	1,833,333,340
2. 미 완 성 주 택	0	2. 국 민 주택 기금 차입금	8,372,166,000
3. 용 지	5,785,279,030	3. 정 기 임대보증금	59,030,158,071
4. 가 설 자 재	9,750,000	4. 특 별 수 선 증 담	728,564,681
		5. 특 직 급 여 증 담	174,741,520
II. 임 대 주 택 자 산	15,930,832,511	부 채 총 계	124,787,912,789
1. 임 대 주 택 용 지	155,922,000		
2. 임 대 주 택 토 지	3,421,203,109	I. 자 본	2,200,000,000
3. 임 대 주 택	8,520,177,564	1. 보 통 주 자 본	2,200,000,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148,287,588		
4. 완 성 임 대 주 택	5,807,573,862	II. 이 익 잉 여	29,472,130,514
감 가 상 각 누 계 액	△825,756,436	1. 처 분 전 이 익 잉 여	29,472,130,514
5. 임 대 주 택 준	219,837,410,187	(당기순이익: 5,512,217,034)	
국 민 주택 기금 차입금	105,779,900,000		
표 준 임대보증금	73,975,402,000	III. 기 타 포 괄 손 익 누 계 액	3,098,853,490
전 환 임대보증금	40,082,108,187	1. 지 분 법 자 본 변 동	3,369,674,365
		2. 부 의 자 본 법 자 본 변 동	△270,820,875
III. 기 타 포 괄 손 익 누 계 액	55,279,243,160	자 본 총 계	34,770,984,004
(1) 투 자 자 산	53,175,357,484		
1. 장 기 금 융 상 품	783,003,909		
2. 지 분 법 자 본 변 동	51,262,812,135		
3. 장 기 대 도 가 능 증 권	1,179,541,440		
(2) 유 형 자 산	1,787,822,013		
1. 토 지	1,885,327,052		
2. 건 물	371,236,718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864,484		
3. 비	57,363,636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4,340,909		
(3) 기 타 비 유 동 자 산	336,263,663		
보 준	336,263,663		
자 산 총 계	159,558,896,793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59,558,896,793

과목	잔액	과목	잔액
I. 유 동 자 산	116,091,813,889	I. 유 동 부 채	111,898,385,382
(1) 당 좌 자 산	73,374,722,489	1. 매 입 채	16,589,189,500
1. 현금및현금성자산	382,040,176	2. 단 기 차 입 금	68,148,429,654
2. 단기금융자산	60,000,000	3. 미 지 급	49,853,181
3. 매출채권	2,370,000	4. 분 양 선 수	7,913,696,542
4. 선 급	2,370,000	5. 예 수	388,495,289
5. 선 급 공사원가	294,191,823	6. 부 가 세 예 수	0
6. 선 급 비	△294,191,823	7. 미 지 급 비	4,101,675,990
7. 미 지 수	63,397,793,005	8. 임 대 보 증 담	241,640,000
8. 미 지 수	2,211,762,304	9. 미 지 급 법인세	3,579,988,226
9. 부 가 세 예 수	△206,406,060	10. 유 동성 장기채무	10,831,184,490
10. 미 지 수	6,254,616,514	11. 기 타 의 유 동 부 채	54,255,510
11. 유 동성 장기차입금	747,024,421		
12. 주주원단기차입금	306,084,610	II. 고 정 부 채	4,784,390,080
13. 선 급 공사비	2,114,563,755	1. 장 기 차 입 금	3,893,333,340
14. 선 급 비	816,631,068	2. 국 민 주택 기금 차입금	0
(2) 고 정 자 산	44,717,091,180	3. 장 기 임대보증금	584,732,000
1. 완 성 주 택	2,211,762,304	4. 회 저 담 여 증 담	818,248,440
2. 용 지	29,198,783,402	국 민 연 급 전 환 금	△31,923,700
3. 미 완 성 주 택	13,306,544,974		
		부 채 총 계	116,662,775,462
II. 임 대 주 택 자 산	0		
1. 임 대 주 택 용 지	0	자 본	1,000,000,000
2. 임 대 주 택 토 지	0	1. 보 통 주 자 본	1,000,000,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0		
3. 임 대 주 택 준	0	II. 자 본 조 정	(-704,785,382)
국 민 주택 기금 차입금	0	1. 감 자 차	(-704,785,382)
표 준 임대보증금	0		
전 환 임대보증금	0	III. 기 타 포 괄 손 익 누 계 액	2,697,817,600
		1. 지 분 법 자 본 변 동	2,697,817,600
III. 기 타 포 괄 손 익 누 계 액	14,922,139,891		
(1) 투 자 자 산	11,483,670,176		
1. 장 기 금 융 상 품	342,675,728		
2. 지 분 법 자 본 변 동	1,755,983,946		
3. 장 기 대 도 가 능 증 권	9,172,737,345		
4. 분 양 선 수	176,603,158		
5. 기 타 의 유 동 부 채	35,770,000		
(2) 유 형 자 산	3,438,569,718		
1. 토 지	1,611,616,710		
2. 건 물	2,061,240,264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84,287,258		
3. 비	155,812,287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55,812,287		
4. 공 구 와 기	0		
5. 기 타 비 유 동 자 산	0		
6. 비	517,437,153		
감 가 상 각 누 계 액	△517,437,153		
자 산 총 계	133,013,953,56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33,013,953,560

계정과목	잔액	계정과목	잔액
I. 유 동 자 산	45,622,152,639	I. 유 동 부 채	10,510,129,299
(1) 당 좌 자 산	38,397,501,365	1. 매 입 채	7,893,207,420
1. 현금및현금성자산	2,108,470,512	2. 단 기 차 입 금	840,000,000
2. 단기금융자산	0	3. 미 지 급	398,924,478
3. 매출채권	30,341,775,550	4. 미 지 급 비	504,986,563
4. 선 급	244,974,289	5. 파 트 분 양 선 수	191,830
5. 선 급 비	△303,417,755	6. 공 사 선 수	126,221,560
6. 선 급 공사원가	941,640,000	7. 예 수	191,830
7. 분 양 미 수	148,388,082	8. 부 가 세 예 수	5,979,020
8. 미 지 수	227,801,100	9. 미 지 급 법인세	741,619,418
9. 미 수 수 익	48,696,740		
10. 선 급 공사비	1,764,014	II. 비 유 동 부 채	1,522,214,218
11. 선 급 비	965,394,129	1. 장 기 차 입 금	1,250,000,000
12. 용 지	26,656,124	2. 회 회 증 담	0
13. 미 완 성 주 택	28,656,124	3. 공 사 대 담	0
14. 완 성 주 택	4,587,000,000	4. 국 민 연 급 전 환 금 (-)	0
15. 용 지	7,224,651,274	5. 회 회 보 험 예 처 금 (-)	0
16. 가 설 자 재	181,616,154	6. 국 민 연 급 전 환 금 (-)	6,000,000
17. 용 지	7,043,035,120	7. 이 익 잉 여	268,214,218
18. 분 양 미 성 공사	0	부 채 총 계	12,032,343,517
II. 비 유 동 자 산	7,488,649,952	I. 자 본	2,300,000,000
(1) 투 자 자 산	6,261,940,498	1. 자 본	2,300,000,000
1. 장 기 금 융 상 품	37,500,000		
2. 지 분 법 자 본 변 동	6,092,471,340	II. 자 본 잉 여	42,287,162
3. 장 기 대 도 가 능 증 권	131,989,158	1. 주 식 발 행 초 과	42,287,162
(2) 유 형 자 산	14,454,224		
1. 기 계 장 치	299,412,206	III. 자 본 조 정	0
2. 차 량 운 반 구	55,822,910	IV. 기 타 포 괄 손 익 누 계 액	0
3. 차 량 운 반 구	△53,470,164		
4. 기 타 의 유 형 자 산	148,744,015	V. 이 익 잉 여	38,736,171,912
5. 기 타 의 유 형 자 산	△136,644,537	1. 기 업 합 리 화 적 담	234,474,138
(3) 기 타 비 유 동 자 산	1,212,255,230	2. 기 술 개 발 선 비	760,000,000
1. 보 통 증 담	1,212,255,230	3. 미 처 분 이 익 잉 여	87,741,697,774
		(당기순이익: 9,596,200,478)	